

자생의료재단, 사회적 가치 확산 앞장선다

지난해 누적 장학금 수혜자 485명
신준식 명예이사장 사재 털어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들 자립·치료 도와
여성 청소년 위생품·방역품 나눔도

환경부터 사회기여, 지배구조까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경영은 이제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자생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인 곳이다. ‘교육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신념으로 실시하는 장학사업부터 독립유공자와 가족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준식 명예이사장 사재 출연

현재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과 함께 ‘희망드림 장학금’, ‘자생 글로벌 장학금’, ‘두드림 장학금’ 등의 다양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혜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485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매년 1억 2000만원 규모의 ‘자생 신준식 장학금’ 사업을 출범했다. 한의학을 이끌 우수인재를 발굴해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회공헌사업이다.

2월 21일 진행된 ‘제1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생 12명에게 1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앞으로 매년 12명의 한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재 장학금 출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에는 독립유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이자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인 신준식 박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1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역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해 근육격체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박종훈 안산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사진제공 | 자생의료재단



공자 가족 대학생들 위해 1억 원을 기탁해 학업과 생계지원을 도왔다.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운동 유공자를 돕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신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 청과 신현표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취지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보살피고 있다.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와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8월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에게 3억 원 규모의 척추관절 질환 치료를 지원했다. 해외에서 영구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 침대, 에어컨 등 생활가전 및 가구를 준비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복지 소외계층 전방위 지원

또한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물품과 생활용품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해 마스크 6만2600장, 손 소독제 4000개 등의 방역물품을 독거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개인방역용품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연평도에서 최전선을 지키는 국군장병에게 격려물품을 기탁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회백신 캠페인에 동참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복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일상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여름에 ‘독거어르신 이불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평소 세탁이 쉽지 않은 이불을 기부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여름을 나도록 도왔다. 겨울에는 한파 속 패지를 겪는 노인을 위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방한복을 지원했다. 방한복 지원은 2023년까지 매년 500벌씩 총 1500벌을 기부할 예정이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 ‘자생 엔젤박스 나눔사업’을 통해 450개의 생리대 박스도 전달했다. 박스 당 1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380여 개의 생리대를 담아 성장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위해 성금 5000만원을 8월 기부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국내 최대 공익 한방의료재단으로서 사회 구성구석에 나눔과 응원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1년간 활발하게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은 ‘2021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을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관절·척추 중점 진료 ‘서울원병원’ 오픈 8개과 협진체제·대학병원급 장비 갖춰



유원준 병원장

서울원병원이 서울 화곡동에 개원했다.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권위자 유원준 병원장을 비롯해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마친 후 임상강사 및 교수를 역임한 나영근, 이영민 대표원장들로 의료진을 구성했다. 유원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서 19년간 재직하면서 소아청소년 스포츠 손상 분야 수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대한정형외과학회 임상 본상을 3회 수상했다.

관절과 척추를 중점 진료하는 서울원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전문의 8인의 협진체제로 맞춤 진료를 제공한다. CT와 MRI 등 대학병원급 검사 장비를 갖추어 진료부터 검사까지 하루에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건강검진 시스템도 운영한다.

나영근, 유원준, 이영민 대표원장은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원칙에 맞는 진료로 전 의료진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명지병원, 선교협의회와 지정병원 협약

명지병원은 한국교세선교협의회와 15일 지정병원 협약을 맺고 해외 선교사들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협약에 따라 명지병원 MJ버추얼케어센터는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온라인 원격진료를 포함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명지병원 방문 시 기존 의료상담 기록과 연계한 논스톱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우대혜택 등도 제공한다. 2020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명지병원 MJ버추얼케어센터는 전용 앱과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가 직접 소통하며 의료상담 및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진료 시스템이다.

광동제약, 비타민B 음료 ‘부탁해B군’ 출시



광동제약은 MZ세대가 참여한 소비자 주도형 음료개발 프로그램 ‘음료마스터’를 통해 기획한 비타민B 함유 음료 ‘부탁해B군’(사진)을 출시한다. ‘카페인 대신 건강한 에너지’라는 콘셉트로 출시과정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진행하는 등 소비자와 함께했다. 비타민 C 500mg에 비타민B 5종의 일일권장량 100%를 더한 제품이다.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해 타우린과 비타민B군, 비타민C 등으로 구성했으며 상큼하고 달콤한 오렌지 맛을 구현했다. 100ml 용량으로 부담없이 마실 수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고대의료원, 우크라이나 의료지원단 국내 첫 파견

조원민 교수팀 145명 19일 출국 고려대 교우회 구호기금 지원도

고려대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은 약 200만 명에 달한다. 대부분 외부환경에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들이지만 현지 의료시설 대부분이 러시아 폭격으로 무너져

심각한 의료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들도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의 우크라이나 의료지원단은 단장을 맡은 조원민 교수(안산병원 흉부외과)를 비롯해 정철웅 교수(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김도훈 교수(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등이 주축이 되어 간호사, 약사, 자원인력 등 해외 긴급구호 및 재난의료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45명으로 이루어졌다.

지원단은 전쟁을 피해 폴란드의 접경지

역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과 현지 고려인들을 찾아가 진료 활동을 펼치고 필요한 의약품과 구호물품 등 도움을 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 교우회도 구호 기금 등 추가지원에 나선다. 고려대의료원 의료지원팀은 16일 발대식에 이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2주 이상 현지에 머물며 활동을 펼친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6.25전쟁 당시 전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와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기억하기에, 고통받는 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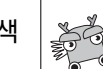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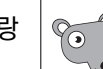
라이나인들과 고려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도주의적 위험을 겪는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병원 최초로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선별진료소와 안암 생활의료센터 운영을 담당했다. 또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말라위 등지에 코로나19 진단기기와 방호복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들어온 특별기여자를 위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17일 (목) 음력: 2월 1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고통을 받던 사람들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은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부모와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관계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수익이 생겼다면 빨리 손을 떼고 그것을 지켜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대폭적 승진·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기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남자 조심하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공연히 부주한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서두르면 낭패본다. 기다려라.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오늘의 날씨				17일(목)			
서울	20/60	인천	20/60	춘천	20/60		
	6 15		5 14		3 13		
강릉	70/80	대전	30/60	전주	30/60		
	6 8		8 13		9 17		
광주	30/60	대구	30/60	부산	30/60		
	10 18		9 13		11 14		
창원	30/60	제주	20/1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9 14		11 14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8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건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